

## 2026 Smako 모의고사 0회 해설

### 1번 문항

출제의도: 제시문의 사실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④

필자의 견해 중 하나는 고전적 추론 규칙을 사용하더라도 환원 절차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환원열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.

①: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.

②: 논리 모순 개념에는 무한 환원열이 존재할 수 없다.

③: 무한 환원열은 언제나 정상형에 도달하지 못한다. 환원 과정은 복잡도를 줄이려는 시도이다. 그러므로 이들 간 상관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.

⑤: 배중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필자의 견해를 나타내므로 테너트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.

### 2번 문항

출제의도: 특정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진정한 역설은 논리 모순과 달리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.

①: 내재적 순환성을 띄기 때문이다.

③: ①과 같은 내용이다.

④: 논리 모순에 해당하는 문장은 정상형에 도달하여 논리적 상태가 안정되지만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이다. 따라서 논리적 오류와 정상형 도달은 양립이 가능하다.

⑤: ④와 같은 내용이다.

### 3번 문항

출제의도: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<보기>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ㄱ이 거짓이면 진정한 역설과 논리 모순의 구분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. 변화가 없으므로 ㉠에 반대하는 입장, 즉 필자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.

①: ㄱ이 참이라면 논리 모순과 진정한 역설의 구분이 모호해진다. 2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은 테넌트를 포함한 논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이다. 따라서 테넌트의 입장은 약화된다.

③: ㄴ이 참이라면 고전 규칙을 통해서도 무한 환원열이 유지될 수 있다. 이는 필자의 견해를 강화하고 테넌트의 견해를 약화한다.

④: ㄴ이 거짓이면 진정한 역설 문장이지만 환원열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. 이는 ①과 마찬가지로 모든 논리학자의 입장을 약화할 수 있다. 그러나 “강화하겠군”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.

⑤: 증거 ㄷ은 “고전적 추론 규칙을 배제하면 무한 환원열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”라는 테넌트의 주장에 대한 반증 사례이다. 따라서 증거 ㄷ은 필자의 견해를 강화하고 테넌트의 견해를 약화한다.

#### 4번 문항

출제의도: 제시문의 사실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⑤

4문단에 따르면 중수대명력, 대명력 그리고 중국의 다른 역법은 모두 태양 운행의 기준점을 동지점으로 삼았다.

①: 보간법에서 오차란 직선 내 두 점 간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함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.

②: 2문단에 따르면 뉴턴 보간법은 라그랑주 보간법과 달리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도 기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. 따라서 그 반대 추론은 적절하다.

③: 2문단에 따르면  $n$ 차, 즉 차수를 키우는 것이 언제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.

④: 보간법이란 근사적 추정을 의미하므로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보간법은 없다.

#### 5번 문항

출제의도: 개념 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④

3문단에 따르면 운행의 불규칙성 때문에 보정값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. 따라서 불규칙성이 커질수록 보정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①: 경삭은 삭망월 주기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. 따라서 경삭은 삭망월의 길이로 구할 수 있다.

②: 정삭은 경삭에 보정값을 더하거나 빼서 구한다. 그렇다면 정삭에 보정값을 빼거나 더해도 경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.

③: 태양과 달의 움직임은 궤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규칙하므로 보정값을 도입했다.

⑤: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을 것이다. 만약 공전 궤도가 원이라면 불규칙함이 발생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보정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천문상수만으로 정삭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## 6번 문항

출제의도: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<보기>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③ (ㄴ, ㄷ)

<보기>에 따르면 곡선 L은 B에 대해 대칭이다. 또한 제시문에 따르면 1년은 24절기로 나눈 각 구간의 길이는 균등하다. 따라서 춘분(B)로부터 경칩(A)와 청명의 거리는 서로 같다. 직선 AB 선형 보간을 적용했을 때 영축 2.3에서 오차가 최대가 되었는데 경칩-춘분 구간에서의 결과이다. 이와 대칭인 춘분-청명 구간에서 곡선 L의 곡률이 최대 지점이 C라면 1문단의 내용에 근거하여 C가 갖는 영축이 2.3임을 추론할 수 있다. 한편 <표>에서 영축은 직전 구간까지의 손익의 합으로 정의된다. 예를 들어 춘분의 영축 2.4는 동지의 손익 2.1에 경칩의 손익 0.3을 누적한 값이다. 대칭성에 따라 청명의 영축은 2.1이므로 X는 -0.3, 즉 0보다 작다. 따라서 경칩과 춘분이 갖는 중률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. 마지막으로 합차는 손익을 한 절기

시간 간격(15일)으로 나눈 값이므로 청명의 합차에 들어가는 분모는 모두 15로 통일되어야 한다.

### 7번 문항

출제의도: 개념 간 관계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분노는 도덕적 감수성에 포함되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사회적 감정에 포함된다. 따라서 분노는 친사회적 감정 중 하나이다.

①: 2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감수성은 행동주의적 관찰을 통해 포착된다. 1문단에 따르면 자연적 실재와 비자연적 실재는 경험/관찰 여부로 구분된다. 그러므로 맥락을 고려할 때 도덕적 감수성은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 실재이다.

③: 3문단에 따르면 감수성이 없는 대상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. 입증이란 도덕적 의무의 주체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적절한 추론이다.

④: 3문단과 마지막 문단 간 정보의 결합을 요구한다. 의심에 빠진 이들은 비자연적 도덕적 실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당화 여부에 대해 잔여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.

⑤: “반대하지 않을 것이다” 는 이중부정에 유의하여 선택지를 판단해야 한다.

### 8번 문항

출제의도: 필자의 견해를 이해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⑤

제시문에서 반복적으로 진술되었던 ‘도덕의 기능’ 관점에 부합하는 선택지이다.

- ①: 필자는 비자연적 실재의 비존재에 관해 논하지 않았다.
- ②: 인간은 감수성과 욕망을 모두 가진 존재이다.
- ③: 언어 능력과 상상력 간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.
- ④: 안심의 대상은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, 즉 실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이다.

**9번 문항**

출제의도: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리하게 나누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A는 키처와 달리 논리적 공간을 한 층 더 추가하여 논증하고 있다. 진리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. 하지만 변경될 수 있는 진리의 일부분을 인정한다. 규범이 도전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유지 또는 변화이므로 A와 키처는 모두 진리가 갖는 규범성이 도전을 받았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.

- ①: 키처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다.
- ③: B는 객관적 기준을 유일한 조건으로 간주하므로 도덕적 기능을 불필요하고 또한 충분하지도 않다고 볼 것이다.
- ④: B는 실재론 입장을 취하고 있다. 따라서 마지막 문단의 참인 것을 믿고 그 반대인 어떤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. 키처는 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표상이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증한다. 따라서 표상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둘은

견해를 달리한다.

⑤: A와 B 그리고 사실 제시문의 필자, 키처 모두 도덕이 갖는 권위, 즉 권위 없는 도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. 차이점이라면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인지 도덕의 실천적 기능인지이다.

### 10번 문항

출제의도: 제시문의 사실적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A와 B의 순환적 균형을 중시한 노자의 생각과 부합한다.

①: 1문단에 따르면 도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며, 통치자는 존재만 알려져 있어야 한다. 3문단에 따르면 사과가 맺히는 과정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. 다시 말해 도의 작용은 드러나지 않는다.

③: 3문단에 따르면 순환 원리는 자연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도 적용된다.

④: 노자가 보는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적절한 진폭을 조절하라는 의미이다.

⑤: 선호되지 않는 상태(B)가 시대상황(위험하고 혼란함)으로 정의 되는 것이 아니다. 그러한 시대에서 주체가 A와 B를 행하는 것이다.

### 11번 문항

출제의도: 논증을 파악하고 입장 간 비교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①

㉠에게 B는 수단이고 A는 목적이므로 B가 A에 비해 부차적이라 볼 것이다.

②: ㉡에게 유지의 대상은 A가 아닌 B이다.

③: ㉠과 ㉡ 모두 노자의 순환적 세계관을 수용하려 했다. 다만 논증 결과에서 충돌이 발생할 뿐이다.

④: A는 선호되는 가치이며, “B에 머물러야 하는가?” 는 ㉡에만 제시될 수 있는 질문이다.

⑤: 순환 자체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 ㉠과 ㉡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. 이들은 그러한 문제의 반대편에 서 있다.

## 12번 문항

출제의도: <보기>의 입장과 제시문 속 필자의 입장을 예리하게 구별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⑤

A와 B의 적절한 공존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형성된다는 관점은 제시문 ㉠ 관점에 해당한다. 이 해석은 ㉡와 <보기>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.

①: 과도함을 추구하는 인간 성향은 공통점이다.

②: A와 B가 상반되고 순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공통점이다.

③: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다. <보기>에 따르면 과잉된 A를 덜어내는 작업은 간과된 B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. 즉, <보기>는 A를 줄이고 B를 키우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㉡에게 A와 B의 진폭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A를 줄이면 그만큼 B도 줄어든다고 볼 것이다.

④: 진폭의 과도함이 자연과 인간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공통점에 해당한다.

**13번 문항**

출제의도: 제시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독해 방법을 적용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⑤

양자화와 학습 데이터의 정규화는 구별된다. 다음으로 정규화 작업이 수동/능동인지 단정할 수 없다.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의 종류는 언급되지 않았다.

**14번 문항**

출제의도: 특정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양/질 구분이다. NF4는 데이터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손실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.

**15번 문항**

출제의도: 가상의 상황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④

㉠에서 ㉡이 출력되는 과정에서 NF4 데이터가 역으로 변환되지

않는다.